



6월2일
수요일

보 도 자 료

생명의 땅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실국	동물방역과	과장	이용보	팀장	정대영	☎	286-6560
----	-------	----	-----	----	-----	---	----------

전남도, 구제역 백신 항체 더 올리겠다

- 기준 미만 4주 간격 추가검사, 음성 개체 재접종 등 관리 -

전라남도는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미흡한 농가는 4주 간격으로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백신 항체가 음성인 소를 개체별로 관리해 항체양성률을 더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2011년부터 백신을 접종하면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백신접종 대상인 소, 돼지 등 가축에서 혈액을 뽑아 항체 형성 여부를 검사한다. 전남도는 4월말까지 소 98.4%, 돼지 89.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는 80%, 번식용 돼지는 60%, 육성용 돼지는 30%를 넘겨야 한다. 항체양성률이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한다. 단, 최초검사에서 16마리 이상을 검사했을 경우에 확인검사를 생략한다.

또, 항체양성률이 개선될때까지 추가 혈청검사를 지속 실시한다. 그동안 최초 검사에서 항체양성률이 미흡한 농가는 개선될 때까지 1~2개월 간격으로 추가 혈청검사를 실시했다. 앞으로는 추가 혈청검사 기간을 4주 간격으로 앞당긴다. 이는 5월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개정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전남도는 소에서 구제역 백신 항체가 음성인 경우 개체번호까지 표시해 관리하기로 했다. 소는 귀표번호 있어 개체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성 개체는 백신을 재접종명령 하는 등 더욱 꼼꼼히 방역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은 백신접종으로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전염병”임을 강조하면서,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하고 소독을 생활화 해 구제역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 전남도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